“주남마을의 치유·평화 울림이 널리 퍼지길”

13일 ‘기역이 니은이 축제’
5회째 시 낭송 강숙자 시인
올해 전원범 시인 작품 낭송
우리춤 배워 소외계층 봉사도

오는 13일 주남마을 ‘기역이 니은이 축제’에서 시 낭송을 하는 강숙자 시인.

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앞을 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과 여자 4명 등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다. 주남마을에 진을 치고 있던 계엄군은 버스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15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당한다. 계엄군들은 부상자 3명을 리어카에 실어 진지로 옮긴다. 그런데 상급자는 부상자를 데려온 것에 질책을 했고, 부하들은 생존한 2명마저 사살한다. 그리고 여학생 1명만 살려둔다.

위 내용은 지금은 많이 알려진 ‘주나마을 인근 양민 학살사건’의 요지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건은 또렷하게 다가온다. 시인은 ‘주남마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시민을 향해 발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마도 광주시민이라면 5·18을 떠올릴 때 잊을 수 없는 참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시인이자 낭송가인 강숙자 씨는 올해로 5회째 ‘기역이 니은이 축제’에서 시 낭송을 한다. 치유와 평화의 주남마을 공동체와 축제 추진위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아픔과 상처에서 승화된 치유와 평화를 지향한다.

“첫 회가 지난 2014년 열렸어요. 그때부터 시 낭송을 했습니다. 올해로 축제가 9회째를 맞는데 중간에 서너 차례 쉰 것을 제외하곤 매년 낭송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시를 읊을 때마다 그날의 처참했던 광경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축제의 명칭인 ‘기역이 니은이’를 떠올린다. 과거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억과 니은을 상징한다.

주남마을 입구에서 5·18 희생자 유령비까지 이르는 테마 길에는 ‘인권’, ‘민주’, ‘평화’라는 시비가 있다. 각각 문병란 시인, 전원범 시인, 손광은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다. 제각기 의미를 담은 꽃과 시를 적은 조형물은 당시의 상흔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이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남마을과 저와의 만남은 지난 2013년 주남마을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찾조 마을 만들기’에 선정되면서였습니다. 그해 12월 28일 창조마을 현판식과 시비가 세워진 것을 계기로 이듬해 ‘기억이 니은이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 자리에서 조형물에 담긴 시를 낭송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됐죠.”

또한 축제 첫 회 때는 시인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춤 ‘나르샤’ 팀의 공연도 펼쳐졌다. 그때의 감격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다.

그는 낭송을 하는 작품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돌아가면서 세 개의 시비에 새겨진 작품을 낭송하는데, 올해는 전원범 시인의 ‘우리가 갈망했던 것은’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남로, 망월동, 주남마을…/ 그 핏자국을 지우고/ 역사의 바퀴는 저만큼 굴러가고 있다.(중략)/ 생명과 평등, 자유와 행복,/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주체가 되는 것./ 그리하여 가슴을 펴고 눈물을 닦으며/ 지금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있다./ 총살과 암매장, 죽음의 골짜기 여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뜨거운 노래를 부르며 이제 우리/ 당당한 모습으로 선다./ 나무처럼, 깃발처럼”(‘우리가 갈망했던 것은’)

5·18 40주년이었던 지난 2020년에는 지금까지 낭송했던 작품이 아닌 다른 시를 소개했다. 시인은 “당시에 문병란 시인의 ‘불혹의 연가’를 선사해 40주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며 “낭송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슴 바닥에 감정이 깔려 있어 낭송을 하는 동안 스스로도 울림을 느낀다”고 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강 시인의 시가 ‘주남 창조마을 만들기 스토리텔링’에 소개됐으며 광주시 1일 명예시장에 선정돼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가 문학에 입문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문학예술’로 등단하면서다. 시 낭송은 2013년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를 쓰다 보니 자연스레 낭송도 하고 싶었다”는 말에서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또한 시인은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춤을 배웠다. 이를 계기로 경로당, 양로원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찾아서 공연을 한다. 일종의 재능기부다. 앞으로도 그는 시와 낭송, 춤을 통해 점차 문화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강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가을 그녀가 내게로 온다’, ‘찻물이 끓어오를 때’를 펴냈으며 현재 서은 문병란문학연구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광주’ 18일 공연실황 중계

네이버 TV·네이버 NOW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뮤지컬 ‘광주’가 네이버 TV와 네이버 NOW로 공연실황 중계된다.

뮤지컬 광주는 광주문화재단과 라이브㈜가 주관하고 라이브㈜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 제작했다. 이번 뮤지컬 ‘광주’의 실황 영상은 오는 18일 오후 7시, 네이버 NOW(https://now.naver.com/player/15283)와 네이버 TV(https://tv.naver.com/l/105824)를 통해 전한다.

이번 뮤지컬 ‘광주’ 중계방송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전 세계 관객들의 안방극장을 찾는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의 뜨거웠던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그날의 뜻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지난 1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세번째 시리즈 공연(지난 4월 27일 공연 회차)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영상에는 이지훈, 정동화, 문진아, 최지혜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가창력과 연기로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세 번의 시즌을 거듭하며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광주 공연은 14일(오후 2시)~15일(오후 2시·6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번 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광주’의 공연실황이 18일 네이버 TV 등으로 중계된다.

국립남도국악원 14일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악당 무대에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라는 주제로 국악연주단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진도영재교육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가정에 달에 흔히 불리는 ‘어린이날 노래’, ‘스승의 은혜’, ‘어버이날 노래’ 등을 들려준다.

이어 어버이에 대한 효심을 가장 깊게 표 현하고 있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과 노래의 조화가 일품인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와 ‘승무’, 그리고 국가와 마을의 안녕의 의미를 담은 민요 ‘보렴’ 등을 들려준다.

토요상설 공연음 무료이며,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올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진의 경계’에 대한 탐구 과정을 말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 연계
13일 참여작가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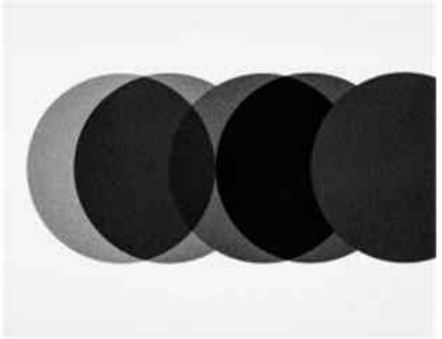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 기획전 ‘사진의 경계’(9월25일까지)와 연계한 행사가 열린다.

박평종 사진비평가(중앙대 사진학과 교수)를 외부기획자로 초청, 기획한 이번 전시는 사진의 원리와 개념, 창작방법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사진 매체의 경계를 보여준다.

전시에는 전통적인 사진 제작 방법을 고수하면서도 과거의 사진이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며 사진의 경계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김규식·박남사·윤태준의 작품 60여점이 전시중이다.

13일 오후 2시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에는 박평종 기획자와 함께 김규식 등 작가들이 함께 해 기획의 의도와 전시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규식 작 ‘Abstract Pictures Combination of circles’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 참여 대학 공모

ACC재단,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 예술대학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예술 유망주를 발굴하고 예술대학 인재들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ACC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작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200만원의 공연 제작비와 함께 공연장, 관련 장비, 무대기술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광주, 전남·북 지역의 공연 관련 예술대학이 대상이며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